

무용전공고등학생의 신체이미지와 자기관리가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

정유진* 단국대학교

이 연구는 무용전공고등학생의 신체이미지가 자기관리와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은 현재 서울 및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에서 무용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었으며, 조사도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199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Windows용 SPSS 18.0을 통해 t-test, 일원변량분석,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적용하여 자료처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성별, 학년, 무용경력에 따라 섭식태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년, 무용경력에 따라 섭식태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체이미지의 하위요인 중 외모평가는 정신관리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모평가는 음식에 대한 몰두에 부적영향을, 절제된 섭식태도에 정적영향을 미치며, 체중불만족은 음식에 대한 몰두, 절제된 섭식태도, 섭식통제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모평가는 음식에 대한 몰두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신체이미지와 자기관리 및 섭식태도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론은 무용전공 청소년들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위해 올바른 신체이미지의 형성의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며, 지나친 외모에 대한 강조는 무용전공 청소년들에게 섭식장애와 같은 병리적 증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견지하고 지도자들은 이들에게 올바른 신체상에 대한 확립을 지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무용전공고등학생, 신체이미지, 자기관리, 섭식태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의 국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최근 5년간 확인된 섭식장애 환자 수는 3만8469명이며, 10대 여성 청소년 가운데 거식증과 폭식증 등 섭식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는 2017년 625에서 2018년 693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22개 국가 대학생들의 신체상과 몸무게 조절 행동에 대한 비교 연구한 결과 한국 여학생들은 22개 국가 중 상대적으로 몸무게 수치가 가장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몸무게를 조절하려는 노력은 22개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Wardle, Haase, & Steptoe(2006)의 연구결과는 한국 청소년들의 신체에 대한 왜곡 정도가 심각함을 말해주고 있다.

이상섭식태도 및 섭식장애는 청소년기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성숙과 관련되어 주로 청소년기 혹은 성인 초기 여성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안숙자, 박주원, 2001), 이에 대하여 “날씬하고 마른 체형에 대한 동경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에 대한 왜곡된 상을 이끌어 생명유지에 필수적 기능인 섭식을 조절

* 단국대학교 음악예술대학 무용과 초빙교수, dbwls3369@hanmail.net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게 하였다.”는 김승경, 손승아(2005)의 주장과 “청소년기 여학생들이 가장 닳고 싶은 몸매의 기준은 국내의 연예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대중매체에서 그려지는 여성의 신체상이 청소년들의 신체지각에 영향을 미쳐 왜곡된 신체상을 갖도록 하고, 이는 이상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김은정(2004)의 보고는 왜곡된 신체이미지가 섭식장애 청소년들의 증가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체이미지는 자신의 신체적 모습에 대해 개인이 가지는 정신적인 심상(Luckmann & Sorenson, 1974)이다. Richardson 등(2009)은 “청소년기는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로, 이는 자신의 신체이미지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였다. 또한 설현진(2009)은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이와 같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며, 정서의 불안이 신체적 불안감과 중복되어 자신의 외모와 신체에 대하여 부정적 태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특히 여성 청소년에 있어서 체형과 체중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인식은 부적절한 체중조절에 대한 강박적 집착으로 이어지기 쉽고, 체중조절의 실패, 신체이미지에 대한 불만족은 직접적으로는 식이장애, 간접적으로는 우울감, 자살사고와 같은 심각한 정신병리의 중요한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현재의 체형과 이상적 체형의 차이가 클수록 우울과 자살사고가 크다.”고 밝힌 송만규 등(2010)의 연구결과는 청소년들의 신체에 대한 왜곡이 얼마나 심리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용전공학생들의 섭식장애의 위험이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Brooks-Gunn 등(1985)은 “무용을 전공하는 여대생의 33%가 거식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 하였으며 Garner와 Garfinkel(1980)은 “미국 직업무용수들의 6.5%가 거식증의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으며, Garner, Garfinkel 등(1987)은 11-14세 사의의 무용전공 여학생의 25%가 섭식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함께 ‘무용전공 여고생이 비전공 여고생보다 섭식장애 경향을 더 보이고 있다.’는 이연숙과 박현(2005)의 보고는 이상적인 신체에 대한 왜곡으로 인한 섭식장애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한국의 청소년들 중 무용전공 청소년들이 특히 섭식장애의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무용은 신체의 움직임으로 무대라는 공간을 통하여 관객에게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일회성을 지니는 순간예술이다. 따라서 자신의 기량과 표현력이 한 순간에 평가가 됨으로써 끊임없이 한 순간을 위하여 훈련과 신체관리에 몰두한다. 김소정 등(2008)의 연구에서는 무용을 배우기 전에 체중조절을 시도한 집단에 비해 공연을 앞두고 체중조절을 시도하는 집단이 폭식의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무용전공자들이 무용을 전공하게 되며 더욱 신체관리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신체관리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에 따른 심리적 장애의 하나인 섭식장애를 더욱 경험하게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무용전공자에게 자신의 예술의 완벽한 성취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 훈련의 과정을 극복해내기 위해 신체적, 심리적인 관리는 필수적인 과제이다. 특히 입시를 앞둔 무용전공고등학생들의 목표성취를 위해서는 신체관리와 정신적 관리가 대학입시의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무용을 전공하는 대학생은 보다 완벽한 연기력을 발휘하기 위해 끊임없이 몸매관리를 하며,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섭식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는 박현정 등(2014)의 보고와 “자기조절을 잘하는 여성일수록 날씬하고 이상적인 신체이미지에 노출되더라도 신체불만족 수준이 더 낮고 양질의 섭식에 관심도가 더 높다.”는 Mask & Blanchard(2011)의 보고는 신체이미지와 자기관리가 섭식태도에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그동안 무용전공학생들과 관련된 섭식태도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무용수의 섭식태도와 사회·심리적 변인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송은주, 김정자, 2004; 이복선, 2013; 이지은, 2008; 이지희, 2016, 최승희, 2009; 황규자, 김기인, 2010)와 무용전공대학생에 관한 연구(이주연, 2012)등, 주로 성인 무용수와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신체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무용전공 고등학생의 섭식태도와 관련된 사회·심리학적 변인의 관계를 규명

한 연구는 예술고등학교 무용전공 여고생의 경쟁불안 심리와 섭식행동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김민정, 2018), 무용전공 여고생의 체중조절태도와 섭식행동을 규명한 연구(최지현, 2010), 무용전공 여고생에서 섭식장애 인지와 비만도에 따른 체중조절 태도 및 식이 자기효능감, 섭식행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석혜경, 허은실, 2009) 등, 소수만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변인들 간의 단순 관련성을 탐색하고 있으며, 신체이미지와 섭식태도를 중재하는 변인들의 상호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무용과 여자대학생의 57.1%가 저체중이며, 45.1%가 섭식장애의 위험 군으로 분류되어 여대생 무용수들이 심각한 섭식장애에 노출되어 있다.”는 김부용 등(2007)의 보고와 “무용수들은 다이어트에 대한 필요성을 증가시키며 섭식장애의 위험을 초래 한다.”고 지적한 Thomson과 Sherman(1993), Preitt 등(1991)의 주장을 토대로 신체이미지의 왜곡에 가장 예민하게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시기인 무용전공고등학생의 신체이미지와 자기관리 및 섭식태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Schauss(1983)는 “섭식은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으로 모든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행동이며, 섭식태도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의 기본적인 생리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이며, 충분한 영양 공급이 주어질 때 인간은 신체적으로 튼튼하고 정신적으로 안정된 건강상태를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올바른 섭식태도는 두뇌활동이 활발하게 작용하여 정서적 안정과 우수한 지적 능력이나 학업이나 모든 일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섭식장애에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된 신체이미지와 섭식태도의 관계와, 이를 중재할 수 있는 예측 변인인 자기관리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신체적, 심리적 불안정으로 인해 섭식장애의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무용전공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연구의 목적은 무용전공고등학생의 지각된 신체이미지와 자기관리 및 섭식태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무용성취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올바른 신체이미지의 확립과 건강한 섭식태도를 인식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2. 연구문제

이 연구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전공고등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신체이미지와 자기관리 및 섭식태도는 어떠한가?

둘째, 무용전공고등학생의 신체이미지가 자기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어떠한가?

셋째, 무용전공고등학생의 신체이미지가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넷째, 무용전공고등학생의 신체이미지와 자기관리 및 섭식태도는 인과적 관계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에서는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무용을 전공하는 고등학생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으며, 자료의 표집방법은 비확률 표본추출 방법인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방법을 사용하여 표본을 수집하였다. 총 223명의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수집된 자료 중 응답이 불성실, 불명확하거나 무응답 내용이 5문항을 넘는 24명의 표본은 제외하였고 총 199명으로 수집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특 성		수 준	빈 도 (명)	비 율(%)
개인적 특성	성 별	남자	34	17.1
		여자	165	82.9
	학 년	1학년	76	38.2
		2학년	67	33.7
		3학년	56	28.1
	경력	2년이하	27	13.6
		3-5년	86	43.2
		6-8년	52	26.1
		9년이상	34	17.1

2. 조사도구

이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조사도구로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배경변인은 개인적 특성의 성별, 학년, 경력을 측정하는 3문항과 독립변인으로 신체이미지를 측정하는 15문항, 매개변인으로 자기관리를 측정하는 12문항, 종속변인으로 섭식태도를 측정하는 20문항, 총 5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개인적 특성

개인적 특성은 성별, 학년, 경력을 측정하는 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보기에서 선택하도록 명목척도로 구성하였다.

2) 신체이미지

무용전공 대학생들의 신체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Cash & Pruzinsky(1990)의 MBSRQ척도를 바탕으로 황진숙, 김윤희가 사용한 설문지를 이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외모평가 4문항, 외모평가 4문항, 체중불만족 4문항, 외모불만족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총 15개 연구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문항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진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었다. 신체이미지의 타당도 검사를 위해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방법을 이용하였고, 요인회전은 직교회전 방식인 Varimax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고유값이 1이상인 요인만 추출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체이미지에 대한 설문 문항의 타당도를 검사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모평가, 외모평가, 체중불만족, 외모불만족 등 4개의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4개의 요인에 대한 누적 분산율은 67.53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각각 .820, .816, .814, .675로 나타났다.

3) 자기관리

무용전공 대학생들의 자기관리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병준(2003)이 개발한 설문지를 의 설문지를 전문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정신관리 9문항, 몸관리 3문항으로 2요인이 추출되었으며, 문항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진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었다. 2개의 요인에 대한 누적 분산율은 71.077%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각각 .947, .774로 나타났다.

표 2. 신체이미지, 자기관리 및 섭식태도의 요인분석 결과와 신뢰도

설문 문항	신체이미지				자기관리			섭식태도			
	외모 평가	외모 지향성	체중 불만족	외모 불만족	설문 문항	정신 관리	몸관리	설문 문항	음식에 대한 몰두	절제된 섭식태도	섭식통제
2	.793	.121	-.004	.119	11	.878	.191	24	.837	.025	.045
3	.787	.276	.090	.194	10	.841	.225	22	.805	.235	.053
4	.725	.197	.087	.173	8	.802	.364	20	.789	.174	.149
1	.663	.394	.088	-.058	7	.799	.294	15	.673	-.142	.308
17	.212	.859	.011	-.028	6	.791	.177	14	.666	.312	.338
18	.212	.765	-.083	.091	12	.789	.174	21	.622	-.308	.191
16	.103	.712	.033	.386	9	.757	.348	16	.587	.509	-.010
14	.201	.636	.241	.330	5	.737	.348	23	.584	.456	-.066
11	.044	.103	.872	.030	4	.712	.414	18	.525	.444	.389
12	-.056	.082	.847	.201	2	.117	.824	7	.046	.830	.219
10	.058	-.104	.789	.233	1	.281	.799	17	.213	.771	.234
5	.428	.020	.602	-.007	3	.472	.695	5	.036	.733	.311
15	.098	.296	.173	.801				1	-.039	.731	.221
13	.181	.243	.233	.732				9	.056	.716	.405
7	.524	-.176	.068	.528				13	.327	.656	.143
								4	.109	.112	.819
								6	.066	.306	.735
								10	.122	.326	.712
								8	.275	.345	.667
								12	.452	.185	.518
신뢰도	.820	.816	.814	.675	신뢰도	.947	.774	신뢰도	.887	.890	.788
고유치	2.861	2.724	2.641	1.903	고유치	5.949	2.581	고유치	4.687	4.628	3.293
분산(%)	19.073	18.162	17.609	12.689	분산(%)	49.571	21.506	분산(%)	23.436	23.142	16.463
누적(%)	19.073	37.235	54.845	67.534	누적(%)	49.571	71.077	누적(%)	23.436	46.578	63.041

4) 섭식태도

무용전공 대학생들의 섭식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Garner 와 GarFinkel(1979)이 제작한 설문지를 김은정 (2004)가 수정·보완한 설문지를 이 연구에 부합하도록 재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요인분석결과 음식에 대한 몰두 9문항, 절제된섭식태도 6문항, 섭식통제 5문항 총 3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문항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진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었다. 섭식태도 설문 문항의 타당도를 검사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누적 분산율은 63.04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각각 .887, .890, .788로 나타났다.

3. 조사절차

과거 설문조사의 경험이 있고 사전 교육받은 2명의 연구 보조원과 연구자와 함께 조사대상 고등학교에 직접방문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고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설문내용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하고 완성된 설문지를 회수 하였다. 설문지에 대한 좀 더 성실한 응답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고등학교에 방문하기 이전에 지도 선생님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뒤, 수업 간 휴식 시간에 쾌적한 분위기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4.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 중 응답의 신뢰도가 낮은 것을 제외하고 분석에 유용한 자료를 수집하여 각 연구문제를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통계방법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각 문제는 유의 수준 $\alpha=.05$ 으로 설정하였다.

- 문제 1. T-test 및 일원변량 분석
- 문제 2. 3.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
- 문제 4. 위계적 회귀분석

III. 연구 결과

1. 무용전공고등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신체이미지, 자기관리 및 섭식태도

개인적 특성에 따라 신체이미지, 자기관리 및 섭식태도의 차이는 어떠한가에 대한 연구문제 1에 대한 검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보면 성별에 따른 신체이미지와 섭식태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신체이미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외모평가($t=-2.094, p<.05$), 체중불만족($t=-3.195, p<.001$), 외모불만족($t=-2.207,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M=3.79, M=2.49, M=3.36$)가 남자($M=3.50, M=1.99, M=3.04$)보다 외모평가, 체중불만족, 외모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섭식태도는 절제된 섭식태도($t=-5.185, p<.001$)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자($M=3.42$)가 남자($M=2.62$)보다 절제된 섭식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자기관리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과 개인적 특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년에 따라 자기관리의 하위요인인 정서관리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F=3.118, p<.05$)가 나타났으며, 2학년, 3학년($M=3.82, 3.71$)이 1학년($M=3.51$)보다 자기관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과 섭식태도에서는 절제된 섭식태도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F=5.211,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학년($M=3.50$)이 3학년($M=3.0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신체이미지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무용경력과 개인적 특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무용경력에 따라 정서관리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F=4.886, p<.01$)가 나타났으며, 9년 이상($M=3.72$)이 2년 이하($M=3.72$)보다 정서관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개인적 특성에 따른 신체이미지, 자기관리 및 섭식태도의 차이

변인	특성	신체이미지							
		외모평가		외모지향성		체중불만족		외모불만족	
		M±SD	t	M±SD	t	M±SD	t	M±SD	t
성	남자	3.44±.84	-1.217	3.50±.83	-2.094*	1.99±.86	-3.195**	3.04±.93	-2.207*
	여자	3.59±.64		3.79±.70		2.49±.63		3.36±.71	
학년	1. 1학년	3.49±.70		3.67±.77		2.36±.68		3.33±.71	
	2. 2학년	3.66±.68	1.185	3.91±.67	2.915	2.50±.60	.913	3.39±.79	1.390
	3. 3학년	3.55±.63		3.63±.72		2.35±.73		3.17±.78	
Scheffe		M±SD	F	M±SD	F	M±SD	F	M±SD	F

무용경력	1. 2년이하	3.42±.61	1.586	3.51±.60	.071	2.28±.55	.0496	3.11±.64	.077
	2. 3-5년	3.50±.65		3.66±.77		2.37±.66		3.31±.75	
	3. 6-8년	3.72±.55		3.88±.62		2.52±.74		3.50±.68	
	4. 9년이상	3.60±.90		3.89±.80		2.38±.83		3.14±.94	
Scheffe									
변인	특성	자기관리							
		정신관리				몸관리			
		M±SD		F		M±SD		F	
성	남자	3.68±.76		.089	3.17±.89		-1.520		
	여자	3.67±.76			3.42±.86				
학년	1. 1학년	3.51±.80		3.118*	3.26±.87		1.096		
	2. 2학년	3.82±.72			3.44±.90				
	3. 3학년	3.71±.73			3.47±.83				
Scheffe									
무용경력	1. 2년이하	3.25±.51	4.886**	1<3,4	3.18±.55	1.645	3.29±.1.01	3.51±.68	3.55±.93
	2. 3-5년	3.62±.85							
	3. 6-8년	3.79±.66							
	4. 9년이상	3.94±.70							
Scheffe									
변인	특성	섭식태도							
		음식에대한몰두		절제된섭식태도		섭식통제			
		M±SD	t	M±SD	t	M±SD	t		
성	남자	2.43±.85	-1.432	2.62±.92	-5.185***	2.97±.92	-1.332		
	여자	2.65±.81		3.42±.79		3.18±.80			
학년	1. 1학년	2.66±.71	.301	3.30±.74	5.211**	3.14±.74	.228		
	2. 2학년	2.61±.90		3.50±.97		3.19±.89			
	3. 3학년	2.55±.85		3.00±.80		3.09±.84			
Scheffe									
무용경력	1. 2년이하	2.65±.74	2.770*	2<3	3.06±.56	4.357**	3.07±.52	.916	
	2. 3-5년	2.53±.86			3.13±.86		3.10±.85		
	3. 6-8년	2.87±.76			3.62±.79		3.30±.81		
	4. 9년이상	2.41±.80			3.32±.1.02		3.05±.95		
Scheffe									

또한 무용경력에 따라 절제된 섭식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F=4.357, p<.01$)가 나타났으며, 6-8년 이상은 ($M=3.62$)이 2년 이하($M=3.06$)보다 절제된 섭식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정신관리와 무용 경력에 따른 음식에 대한 몰두는 $p<.05$ 수준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후 검증 결과 집단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용경력에 따른 신체이미지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무용

2. 무용전공고등학생의 신체이미지가 자기관리에 미치는 영향

무용전공고등학생들의 신체이미지, 자기관리 및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체이미지, 자기관리 및 섭식태도의 모든 변인들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연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1

	1	2	3	4	5	6	7	8	9
외모평가	1								
외모지향성	.481**	1							
체중불만족	.210**	.191**	1						
외모불만족	.451***	.414***	.429***	1					
정신관리	.244**	.326***	.015	.083	1				
몸관리	.228**	.238**	.150*	.174*	.606***	1			
음식에대한몰두	-.004	-.126	.393***	.334***	.128	.206**	1		
절제된섭식태도	.263***	.306***	.565***	.350***	.271***	.260***	.427***	1	
섭식통제	.190**	.185**	.380***	.364***	.201**	.146*	.514***	.602***	1

* $p < .05$, ** $p < .01$, *** $p < .001$

무용전공고등학생들의 신체이미지가 자기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체이미지의 하위변인인 외모지향성 정신관리(β .300)에 유의한 영향($t=3.786$,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관리, 몸관리에 대한 신체이미지 변인의 전체 예언변량은 각각 10.8%, 6.2%로 나타났다.

표 6. 신체이미지가 자기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변인	정신관리				몸관리			
	B	SE	β	t	B	SE	β	t
(상수)	2.303	.334		6.888***	1.789	.391		4.575
외모평가	.167	.091	.149	1.841	.166	.106	.129	1.561
외모지향성	.314	.083	.300	3.786***	.183	.097	.153	1.885
체중불만족	-.037	.081	-.033	-4.50	.108	.095	.087	1.140
외모불만족	-.094	.084	-.094	-1.119	.017	.098	.015	.173
R ² /F값	.108/6.966 p<.001				.062/4.297 p<.001			

* $p < .05$, ** $p < .01$, *** $p < .001$

3. 무용전공고등학생의 신체이미지가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

무용전공고등학생들의 신체이미지가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체이미지에 대한 외모지향성 요인은 음식에대한 몰두(β -.291)에 유의미한 부적(-)영향($t=-4.054$, $p < .001$)을 미치며 절제된섭식태도(β .164)에 유의한 정적 영향($t=2.429$, $p < .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불만족은 음식에 대한 몰두(β .313), 절제된섭식태도(β .504), 섭식통제(β .274)에 유의미한 정적영향($t=4.642$, $p < .001$; $t=7.951$, $p < .001$; $t=3.835$,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신체이미지가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변인	음식에대한몰두				절제된섭식태도				섭식통제			
	B	SE	β	t	B	SE	β	t	B	SE	β	t
(상수)	2.068	.325		6.362	.645	.322		2.006	1.365	.345		3.956
외모불만족	-.112	.088	-.093	-1.270	.077	.088	.061	.885	.019	.094	.016	.202
외모지향성	-.326	.081	-.291	-4.054***	.194	.080	.164	2.429*	.035	.085	.031	.405
체중불만족	.367	.079	.313	4.642***	.622	.078	.504	7.951***	.322	.084	.274	3.835***
외모평가	.390	.082	.362	4.777***	.043	.081	.038	.537	.245	.087	.227	2.829**
R ² /F값	.266/18.978 p<.001				.351/27.779 p<.001				.179/11.776 p<.001			

* $p < .05$, ** $p < .01$, *** $p < .001$

4. 무용전공고등학생의 신체이미지, 자기관리 및 섭식태도의 인과관계

본 연구에서는 무용전공고등학생의 신체이미지와 자기관리 및 섭식태도의 인과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3단계 매개효과 과정을 적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으며, 매개효과에 대한 간접효과 검증은 Sobel-test Z검정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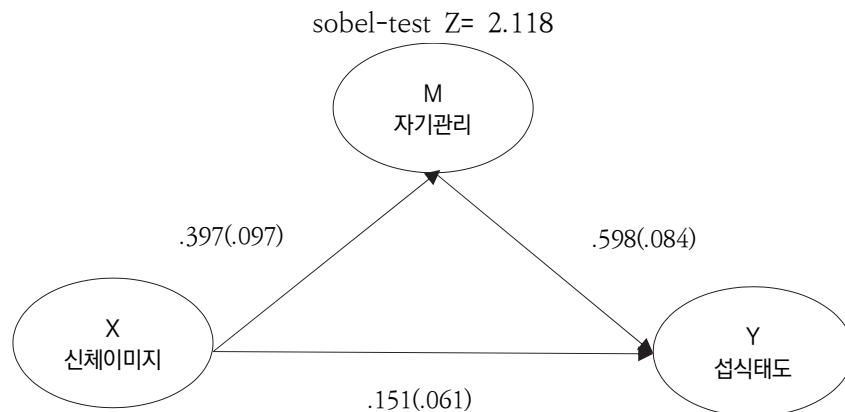
표 8. 신체이미지, 자기관리 및 섭식태도의 인과관계

단계	독립	종속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오차	β	
1단계	(상수)		2.236	.319		7.018
	신체이미지	자기관리	.397	.097	.281	4.114***
			R ² = .074			
2단계	(상수)		1.069	.277		3.859
	신체이미지	섭식태도	.598	.084	.453	7.125***
			R ² = .201			
3단계	(상수)		.732	.306		2.394
	신체이미지	섭식태도	.538	.086	.407	6.232***
	자기관리		.151	.061	.161	2.464*
			R ² = .221			

*p<.05, **p<.01, ***p<.001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1단계에서 독립변인(X)인 신체이미지가 매개변인(M)인 자기관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281, p<.001$), 2단계에서 독립변인(X)인 신체이미지가 종속변인(Y)인 섭식태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력($\beta=.453, p<.001$)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 검증에서 1단계와 2단계가 충족되었다. 3단계 독립변인(X)과 매개변수(M)이 동시 투입된 단계에서는 독립과 매개변인(M) 모두 종속변인(Y)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07, p<.001$: $\beta=.161, p<.01$). 따라서 1~3단계 모두 충족되었으며, 1단계 보다 3단계 회귀계수의 영향력 크기(1단계=.281, 3단계=.161)가 감소한 결과가 나타나 신체이미지가 자기관리와 섭식태도에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obel-test Z 검증 결과 간접효과는 Z=8.336(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Sobel-test



Sobel-test Z 검증 공식:
$$Z_{ab} = \frac{a \times b}{\sqrt{(a^2 \times seb^2) + (b^2 \times sea^2)}}$$

그림 1. 무용전공고등학생의 신체이미지, 자기관리 및 섭식태도 간의 인과모형

결과값은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판정한다(Baron & Kenny, 1986).

IV. 논 의

이 연구는 신체이미지의 왜곡에 가장 예민하게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시기인 무용전공고등학생의 신체이미지와 자기관리 및 섭식태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적 특성에 따른 신체이미지와 자기관리 및 섭식태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외모지향성, 체중불만족, 외모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제된 섭식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신의 신체이미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며, 섭식태도에 있어서도 절제된 섭식태도가 더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이 20세 미만인 집단에서 신체불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섭식태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최승희(2009)의 연구결과와 섭식장애는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서 빈번하게 보고된다고 한 Wittchen & Jacobi(2005) 연구, 여자무용수가 남자무용수보다 절식행동이 높다고 보고한 김태경(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Sinclair(2006)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내면화할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한 관찰과 감시가 많아지며, 사회문화적 외모기준은 실제로 성취되기 어렵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러한 이상적 신체표준을 내면화 할 때, 자신들의 신체에 대하여 수치심을 느낀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사회적 비교과정이 여성의 신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Heinberg 등, 1995). 이는 상대적으로 여학생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무용전공 고등학생들의 신체이미지에 대한 왜곡이 다른 분야에 비해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신체이미지에 대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지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학년과 개인적 특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년에 따른 신체이미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2학년이 3학년보다 절제된 섭식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학년, 3학년이 1학년보다 자기관리가 높은 것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후 검증 결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무용경력은 6-8년이 2년 이하보다 절제된 섭식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년이 높을수록 자기관리가 높고, 경력이 높을수록 절제된 섭식태도가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발레무용수 중 경력 7-9년 이상이 그 이하의 무용수보다 음식에 대한 몰두와 섭식통제 요인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최승희(2009)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학년이 높고 경력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무용에 대한 많은 경험을 통해 마른 몸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강요를 오랜 기간 동안 느껴 왔을 것이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학년이 높고 무용경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자신의 높은 성취를 위해 자기관리와 섭식절제가 높을 수밖에 없었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둘째, 무용전공고등학생들의 신체이미지가 자기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신체이미지의 하위변인인 외모지향성은 정신관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지향성이란 추구하는 이미지에 대한 목표를 형성하여 작정하거나 지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무용전공 고등학생들은 자신이 지향하는 이상적 외모를 위하여 정신적인 관리를 높게 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무용수들의 자기 신체에 대한 지각이 자기관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이준철(2010)의 연구와 운동선수들의 신체이미지의 하위요인 중 외모만족과 외모관심 요인이 정신관리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 김판규 등(2011)의 연구결과는 이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셋째, 신체이미지의 외모지향성 요인은 음식에 대한 몰두에 부적(-)영향을 미치며 절제된 섭식태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중불만족은 음식에 대한 몰두, 절제된 섭식태도, 섭식통제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모평가는 음식에 대한 몰두와 섭식통제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모지향성이 높을수록 음식에 대한 몰두에 관해 영향을 덜 받으며, 체중불만족 할수록 모든 섭식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외모에 대한 평가에 민감할수록 음식에 대한 몰두와 섭식을 통제하려는 태도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불만족이 높은 발레무용수들이 절식과 음식에 대한 몰두, 섭식통제 등을 많이 한다고 밝힌 최승희(2009)의 연구와 무용수들의 몸무게에 대한 강박관념, 무용성취 스트레스가 섭식장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정상선 등(2009)의 연구결과 맥락을 같이 한다. 신체불만족 수준이 높거나 체중과 외모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섭식태도에 문제가 발생되어 식이장애가 발생된다고 보고한 Button 등(1997)의 주장은 신체이미지의 왜곡이 올바르지 못한 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쳐 섭식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올바른 신체이미지의 확립은 건강한 섭식태도를 촉진시키고 무용전공 고등학생의 건강한 무용성취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을 시사한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무용전공고등학생의 신체이미지와 자기관리 및 섭식태도의 인과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3단계 매개효과 과정을 적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체이미지가 자기관리와 섭식태도에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기조절을 잘하는 여성일수록 날씬하고 이상적인 신체이미지에 노출되더라도 신체불만족 수준이 더 낮고 양질의 섭식에 관심이 더 높다.”는 Mask & Blanchard(2011)의 연구결과가 이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따라서 무용전공 고등학생의 올바른 신체이미지 지각과 건강한 섭식태도의 형성은 자기관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용전공 고등학생들에게 지각된 신체이미지는 섭식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다소 날씬하지 않거나 다소 체중이 많이 나가는 무용전공 고등학생에게 지도자나 부모, 동료 등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나 체중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은 이들로 하여금 자존감을 낮추고 이로 인해 섭식태도에 이상을 일으키고 섭식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하고, 이들의 건강한 섭식태도 확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 론

한국의 청소년들에게서 섭식장애와 같은 심리적 이상의 발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연구는 신체의 움직임 매개로 자신의 전공 성취를 이루어야 하는 무용전공고등학생들의 신체이미지와 자기관리 및 섭식태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올바른 신체이미지의 확립과 건강한 섭식태도를 갖추기 위한 학문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무용을 전공하고 있는 고등학생 1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개인적 특성에 따른 신체이미지와 자기관리 및 섭식태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외모관리, 체중불만족, 외모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제된 섭식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과 개인적 특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2학년, 3학년이 1학년보다 자기관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학년이 3학년보다 절제된 섭식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용경력과 개인적 특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9년 이상이 2년 이하보다 정신관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6-8년이 2년 이하보다 절제된 섭식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무용전공고등학생들의 신체이미지가 자기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신체이미지의 하위변인인 외모지향성은 정신관리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체이미지의 외모지향성 요인은 음식에 대한 몰두에 부적영향을 미치며 절제된 섭식태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중불만족은 음식에 대한 몰두, 절제된 섭식태도, 섭식통제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모자신감은 음식에 대한 몰두와 섭식통제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무용전공고등학생의 신체이미지와 자기관리 및 섭식태도의 인과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3단계 매개효과 과정을 적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체이미지가 자기관리와 섭식태도에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후속연구에서는 신체이미지와 섭식태도에 관계하는 다양한 변인들을 탐색은 올바른 신체이미지와 건강한 섭식태도를 확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양적연구로서 섭식태도에 관련된 변인들의 관계를 규명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무용전공 고등학생들에게 내재된 섭식태도와 관련된 심리적 탐색을 위해 심층적인 질적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김민정(201). 예술고등학교 무용전공 여고생의 경쟁불안 심리가 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병준(2003). 운동선수 자기관리행동의 측정. 체육과학 연구, 14(4), 125-140.
- 김부용, 김기진, 이정일(2007). 무용전공 여대생의 전공별 섭식장애 및 식이행동의 비교. 한국체육학회지, 46(6), 553-561.
- 김소정, 손호, 류호상(2008). 무용전공 여대생의 BMI 및 신체자아상에 따른 섭식태도 수준. 한국발육발달학회지, 16(3), 163-172.
- 김승경, 손승아(2005). 여대생의 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대한여성건강 6(1), 53-70.
- 김승경, 손승아(2012). 여대생들의 완벽주의/신체 존중감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은정(2004). 청소년기 여학생들의 체형인식도 및 체중조절 실태와 이상 섭식행동 관련 요인.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판규 등(2011). 운동선수들의 신체이미지가 외모평가행동 및 자기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0(4), 169-180.
- 박현정, 임인선, 이진효(2014). 무용전공생의 신체이미지와 폭식습관의 관계 분석.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2, 117-134.
- 석혜경, 허은실(2009). 무용전공 여고생에서 섭식장애 인지와 비만도에 따른 체중조절 태도 및 식이 자기효능감, 섭식행동.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14(4), 383-391.
- 설현진(2009).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른 외모만족도와 뷰티행동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송만규, 하지현, 박두흠, 유승호, 오정현, 유재학(2010). 여자청소년의 신체이미지와 식사태도가 우울감과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신신체의학회지, 12(1), 40-47.
- 송은주, 김정자(2004). 무용수의 바디 이미지에 대한 태도가 무용수행 및 섭식장애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3(5), 779-790.
- 안숙자, 박주원(2001). 서울지역 주민의 연령, 성별에 따른 식사행동 및 식품인식도 비교. 한국조리식품과학회지, 17(5), 441-455.
- 이복선(2013). 무용전공자의 섭식태도가 자기관리와 신체적 자기개념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이연숙, 박현(2005). 무용전공여고생과 비전공 여고생간의 섭식장애, 월경 장애 및 영양상태 비교.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16(1), 56-64.
- 이주연(2012). 무용전공 여대생들의 섭식태도에 따른 자아존중감, 스트레스의 관계.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6(4), 111-126.

- 이준철(2010). 무용전공자의 신체적 자가지각과 자아존중감이 자기관리를 통한 자아실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대학원.
- 이지은(2008). 직업무용수들의 식사태도와 섭식장애 행동유형의 관계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지희(2016). 전문무용수의 건강행동과 섭식행동 결정요인 분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 정상선, 조정호, 신말연, 최혜진, 이지현, 최보인, 김희정, 김선민, 정재현, 양명주(2009). 한국무용 전공자들의 섭식태도와 골밀도와 의 관계.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3(1), 97-107.
- 최지현(2010). 무용전공 여고생의 체중조절태도와 섭식행동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승희(2009). 발레무용수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 신체불만족, 섭식태도의 관계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황진숙, 김윤희(2006). 외모평가행동에 따른 신체이미지 및 심리적 안녕감. *한국복식학회지*, 56(3), 143-155.
- 황규자, 김기인(2010). 무용수의 섭식태도에 따른 신체적 자가지각 연구. *한국무용과학회지*, 20, 1-13.
- Baron, Reuben, M., Kenny, Davi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rooks -Gunn, J., & Warren, M. P.(1985). The effects of delayed menarche in different contexts:Dance and nondance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4(4), 285-300.
- Button, E. D., Loan P., Davis, J., & Sonuga-Barke, E. S.(1997). Self-esteem, sating proble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 coort of schoolgirls aged 15-16: A questionnaire and interview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1, 39-47.
- Cash, T. F. & Pruzinsky, T.(1990). *Body image development, deviance and change*. NY: The Guilford Press.
- Garner, D. M., Garfinkel, P. E.(1980). Socio-cultural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anorexia nervosa, *Psychological Medicine*, 10, 647-56.
- Garner, D. M., Garfinkel, P. E., Rockert, W., & Olmsted, M. P.(1987). Aprospective study of eating disturbances in the ballet. *Psychotherapy Psychosomatics*, 48, 170-175.
- Heinberg, L. J., Thompson, J. K., & Stormer, S. M.(199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 appearance questionnair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7(1), 81-89.
- Luckmann, J. & Sorrensen, K. C.(1974). *Medical-Surgical Nursing*. W.B. Saunders Company.
- Pruitt, J. A., Kappius, R. V., & Imm, P. S.(1991). Sports, exercise, and eating disorders. In L. Diamant(ED), *psychology of Sport, Exercise, and Fitness: social and Personal Issues*. Washington: Hemisphere Publishing Crop.
- Richardson, S. M, Paxton, S. J., & Thomson, J. S.(2009). Is Body Think an efficacious body image and self-esteem program A controlled evaluation with adolescents. *Body Image*, 6, 75-82.
- Schauss, A. G.(1983). Nutrition and Behavior,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3. 9-37.
- Sinclair, S. L.(2006). Object lessons : A theoretical and emprirical study od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in woman.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8(1), 48-68.
- Thompson, R. A., & Sherman, R. T. (1993). *Helping athletes with eating disorders*. Leeds, UK; Human Kinetics Publishers.
- Wittchen, H. T., & Jacobi, F.(2005). Size and burden of mental disorders in Europe-a critical rewiw and appraisal of 27 studies. *Europe Neuropsychopharmacolog*, 15, 357-376.
- Wardle, J., Haase, A. M., & Steptoe, A.(2006). Body image and weight control in young adult; international comparison in university student from 22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Obesity*, 30, 644-651.

ABSTRACT

The effects of body image of high school students majoring in dance on self-management and feeding attitude

Yujin Jung Dankoo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body image of high school students on self-management and feeding attitude. The research subject was a student who majored in dance in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questionnaire was used as a survey tool. A total of 199 data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rough the SPSS 18.0 for Windows, data were processed using t-test, one-way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eating attitude according to gender, grade, and dance experience, and eating attitudes differed according to grade and dance experience. Second, appearance management among sub-factors of body image had a positive effect on mental management. Third, appearance management had a negative effect on external eating, a negative influence on restrained eating, and weight dissatisfac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external eating, restrained eating, and emotional eating. Have been shown to have a positive effect, Fourth, there was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body image, self-management and feeding attitude. The above conclusions suggest that the formation of correct body image is important for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of dance majors. Therefor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emphasis on excessive appearance can promote pathological symptoms such as eating disorders in adolescents majoring in dance.

Key words : body image, self-management, feeding attitude. high school students majoring in dance

논문투고일: 2020. 02. 28

논문심사일: 2020. 04. 09

심사완료일: 2020. 04. 20